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 Korean Academic Journal Evaluation Model

한 상 완(Sang-Wan Han)**

박 흥 석(Hong-Seok Park)***

목 차

- | | |
|-------------------------|-----------------|
| 1. 연구 목적 | 6. 학술지 평가항목의 선택 |
| 2. 학술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 | 7. 항목의 구체화와 분류 |
| 3. 국내 학술지 평가를 위한 고찰 | 8.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 |
| 4.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9. 연구결과의 한계 |
| 5. 연구 결과 | |

초 록

학술지는 학문교류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학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는 이의 질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학술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가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학술지에 대한 평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학술지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학술지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 수 있으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 학계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맞아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 평가의 근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 외국 사례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ABSTRACTS

The academic journal is a very important means for science communication, and it is critical for academic development. Most of Korean academic journals are not doing their fundamental roles because of the researchers' perception about their quality. A fundamental thing for Korean academic journals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science communication would be the effective evaluation on the jour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Korean academic journals. This model will be effective for quality measurement, manifestation of the strength and weak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journal quality. It was developed through analysis on evaluation activities of two institutions, and through interviews and surveys on Korean researchers.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7년 정책과제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연구처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접수일자 1999년 4월 26일

1. 연구 목적

학술지는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서, 학문의 교류 수단으로서, 그리고 지식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지는 학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지식의 축적 수단으로서 한 나라의 학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술지의 발전은 한 나라의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知識基盤 經濟·社會에 對備한 情報化 戰略(정보통신부 1998)이나 OECD 정책 보고서의(OECD 1996)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지식기반사회이다. 국가의 지식과 이의 창출 능력이 국부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수단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학술지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학술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학술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가 없다면 학술지의 질에 대한 논의와 질 향상에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공정한 학술지 평가의 학술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술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질에 관계된 모든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학술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국내 연구 인력과 연구 기관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학술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양질의 학술지만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정보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국내 학술지 평가를 위한 고찰

2.1 평가의 기본적인 기능

일반적으로 평가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는 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 간에 우열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이 기능의 수행만으로 평가가 완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평가 대상간의 우열과 함께 평가 대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평가의 목적이 완료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학술지 평가의 경우도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평가의 목적이 학술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술지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술지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술지 평가의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학술지 평가는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평가 대상의 효율을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평가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는 평가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2. 2 학술지의 질과 사회문화적 요소

학술지는 쓰여진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없다. 연구수행인력의 양성, 논문의 주제 선정, 연구비 지원, 자료 수집 및 분석,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수정 절차, 게재, 독자로부터의 반응 등 매우 복잡한 요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학술지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는 학술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과정,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학술자료의 범위나 질 등은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는 학술지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한국과 같이 학문적으로 선진화된 제도적 체계가 실현되지 못하고, 다양한 주제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의 층이 두텁지 못하는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학술 기반이 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가 학술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학술지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즉 학술지의 질 향상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학술지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양성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3 평가방법의 선택

우리에게 필요한 평가의 기본 기능과 학술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맞는 평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3. 1 학술지에 대한 인용에 의한 평가

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술지 평가 방법은 인용에 의한 평가다. 하나의 학술지에 대해 측정된 인용의 정도를 근거로 학술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학술지에 대한 인용 횟수, 게재된 논문에 대한 평균 인용 횟수 등 선택된 기준에 대한 평가 대상의 효율을 수치로서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인용 분석은 개별 저자, 학술지, 개별 연구기관, 대학, 국가 등의 단위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학술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용에 의한 평가는 이에 상응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인용에 의한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에 대한 인용과 학술지의 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의 타당성을 다루어 보자면, 우선 인용 횟수와 질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인용에 의한 평가는 인용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문 분야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Cronin 1984), 인용 수와 학술활동의 질 사이의 명확하지 않은 관계에 의존한다는(Lindsey 1989)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들은 (예: McAllister, Anderson & Nardin 1979) 인용 분석에 의한 학술지 평가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용에 의한 평가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용의 측정치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일 것이다. 인용 횟수나 Impact factor 등의 계량적 인용 분석의 결과가 크지

않다면 학술지 질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인용 평가를 실시하는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도 인용 데이터는 조심해서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인용 데이터는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ISI 대표단 초청 특별 강연회 1997). 인용의 양에는 학술지의 질 외에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다른 큰 단점으로는 국내 학술지에 대한 인용이 낮은 분야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서 전체 인용 중 정기간행물을 인용한 것은 20.6%이고 그리고 2.7%만이 국내 것이라는 결과와(남영준 1995, 130) 전기, 전자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12개의 학술지 중 국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결과는(이해영 1994)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층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동민(1996)의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인용의 계량적 측정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적은 양의 인용으로 평가하는 경우 어느 정도 질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적지않은 경우 10년 이상, 걸쳐 축적된 인용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오래된 자료로 현재의 학술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에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3. 2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에서는 명시된 평가기준이 없어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의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주관적 평가는 인적, 사회적 요소 등과 같은 평가 대상 학술지 자체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주관적인 평가의 장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우수하고 양심적인 평가위원의 선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두터운 신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2. 3. 3 설문에 의한 평가

설문에 의한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과 관계 있는 학술지를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새로운 분야나 규모가 적은 분야의 학술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 학문분야의 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2. 3. 4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을 사용해 학술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의 ISI와 Medline을 운영하는 NLM이다. 이들 기관은 학술지 평가의 경험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들 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시킬 학술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 가치와 더불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함목적성을 근거로 평가한다. 둘째, 그들은 학문의 문화와 풍토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참고할 가치는 높지만 이들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 없이 우리의 학술지 평가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셋째,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항목은

학술지의 선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학술지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의 제시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항목에 의존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학문 분야들은 그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한다. 학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모든 학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도 있겠으나 개개의 학문 분야에 맞는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다.

둘째, 선정된 평가항목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의 입증이다. 타당한 평가항목이 선정되었다 해도 선정된 평가항목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학술지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면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성 또한 다를 것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셋째, 평가자에 의한 모든 평가에 공통된 것으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가항목 자체가 계량화된 것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적겠지만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평가항목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2. 3. 5 평가방법의 선택

위의 방법들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술지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에 의한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평가항목에 의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평가항목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어려움이 효과적으로 극복이 되어야 하겠지만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채택해 이들 항목을 기준으로 학술지를 평가한다면 학술지의 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대상 학술지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보여주어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학술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학술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술지가 질 높은 학술지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촉진한다면 학술지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3. 학술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

남영준(1995, 129)은 인용 분석에 의존한 연구 분야중의 하나인 대상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에서 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학술지 평가기준에 연관된 학문분야로는 학술지 혹은 학술 활동의 계량화를 다루는 학문인 Scientometrics와 Bibliometrics가 있다.

이들은 주로 인용의 계량에 의한 것을 다루고 있어 학술지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인용분석에 의한 것 외에는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Hargens, L. & Herting J.(1990)가 수행한 심사결과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와 Weller, A.(1987)의 투고 규정과 학술지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같이 학술지 질에 연관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관한 연구만이 발견되었다. 국내외에서 인용의 계량적 측정에 의한 방법 외에 학술지 평가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술지 평가에 관해 조사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1 인용의 계량에 의한 평가

학술지 평가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단이 인용의 계량적 분석이다. 학술지 평가에 인용을 사용하는 것은, 인용된 횟수와 학술지의 질이 비례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용의 계량적 분석을 통한 학술활동의 평가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ISI가 발행하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인데 인용 횟수와 impact factor 등 인용의 계량적 측정치로부터 파생된 몇 개의 지표를 사용해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다(Garfield 1990).

3. 2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는 많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특정하게 지정된 평가항목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지식과 양심에 전적으로 근거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다. 학위논문의 심사, 투고 논문의 심사 등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학술지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3 설문에 의한 평가

학술지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술목적으로는 실시된 경우가 있다(예: McAllister, Anderson & Nardin 1979).

3. 4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

학술지의 질에 연관된 다수의 항목을 정한 후 정해진 항목에 근거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평가항목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선정에 연관된 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견할 수 없었다.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외국 논문(Hargens & Herting 1990; Weller 1987) 두 편만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 이외에 학술지 평가항목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용의 계량에 의한 평가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하는 사례는 있었다.

국내의 경우 의학분야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해 의학학술잡지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97년 3월 26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개최되었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997년도 정기 총회”에서 학술지 평가사업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제시되었는데,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학술지와 게재 논문의 외면을 평가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었다. 평가항목은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의학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국외의 경우는 미국의 ISI와 NLM이 평가항목을 사용해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었다.

ISI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JCR (Journal Citation Reports)의 인용분석 결과를 사용해 학술지를 평가하지만 인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해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다. ISI의 창시자인 Eugene Garfield가 1990년에 밝힌 것과 본 연구팀이 ISI를 직접 방문해 평가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아낸 평가항목은 1)정시발행, 2)서지사항의 정확성, 3)언어, 4)게재 소요 시간, 5)논문심사, 6)심사자와 투고자의 연구실적, 7)심사위원과 저자의 지역적 분포, 8)주제의 적합성, 9)분야의 발전 전망, 10)기존의 학술지에 대한 보완성, 11)출판사 등이 있다. 이들 중 학술지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 항목은 5, 6, 7의 세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은 ISI가 인용색인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해 선정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NLM은 선택된 평가항목에 대해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가 평가를 한다(NLM 1998). NLM은 주제의 적합성(scope and covera-

ge), 내용의 질(quality of content), 편집(quality of editorial work), 외관(production quality), 대상 이용자(audience), 내용 형태(types of content), 학술지 언어(foreign language journals), 지역 특성(geographic coverage) 등을 고려해 등재 대상 학술지를 결정하는데 NLM 역시 투고 논문의 질 외에 자신이 발행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합목적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3. 5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이들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학술지를 평가할 수 있다. Lancaster는 1)도서관 이용, 2)타 기관의 서지데이터, 3)이용자의 의견, 4)인용, 5)impact factor, 6)비용의 효율, 그리고 7)출판된 논문 수에 의한 평가 방법을 열거하였다(장혜란 1990, 90-92).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학술지 평가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제시된 4개를 중심으로 학술지 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효율의 측정, 평가 대상의 장점과 단점의 가시화, 그리고 가시화된 장점의 강화와 단점의 보완이라는 평가의 기본적인 3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 학계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평가모형의 개발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4. 1 연구 방법의 선택

평가항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학술지의 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그 외의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해 어떤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를 측정해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독립변수를 평가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된 요소를 선택해 평가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독립변수의 선택이 작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독립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회의 회원 수와 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발견되었다 해도 학회의 회원 수를 평가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회의 회원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게재를 위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학술지의 질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학회의 회원 수보다는 게재율을 평가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학술지에 관계하고 있는 인원(예: 이용자, 투고자, 편집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단점은 위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학술지에 연관이 있는 인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택된 항목은 학술지 질과의 관계가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선택된 항목이 작위적이지 않고 학술지에 관계하고 있는 인원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항목이기 때문에 학술지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관계하는 인원의 의견을 반영해 요소들을 도출한 다음 이러한 요소들과 측정된 학술지 질과의 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할당된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학계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항목과 학술지 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은 폭 넓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4. 2 면담 대상 결정

학술지에 연관된 인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당한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평가 대상이 학술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다. 학술지 논문의 저자는 투고할 학술지의 선택,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지 평가와 이용, 학술지에 대한 인용 등을 하기 때문에 학술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학술지의 존재와 질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학술지의 질

을 항상 의식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학술지 논문 저자의 의견은 학술지 평가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

4. 3 저자의 학술지 평가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학술지의 주된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투고자인 논문의 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의 문제점, 학술지의 질 향상 방법, 학술지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관점 등에 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면담 대상자들이 학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학술지에 연관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면담 자체를 일정한 틀에 맞추어 실시하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는 자유로운 형태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우선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해당 분야의 국내 및 국외 학술지의 현황이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연구자와 면담 대상자 사이에 본격적인 면담 이전의 도입기를 가졌다. 학술지의 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구성과 중요한 학술지 평가기준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핵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좋은 학술지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례, 질 낮은 학술지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례, 해당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특정 학술지의 추천 및 추천 이유는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목차 속보, 인용 행태, 선호하는 투고 학술지 등에 관한 질문은

학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학술지를 선택하는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학술지를 연구자와 연구단체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평가기준에 관한 질문, 국내 학술지와 국외 학술지의 비교, 국내 학술지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질문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면담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학술지 평가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은 “계명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의한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일람표”에 학술지 명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444개의 학술지 중 매 10번째 학술지만을 선택하여 44개의 학술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술지의 1996년 첫호에 게재된 첫째 논문의 저자(다수의 논문일 경우 첫 저자가 우선)를 대상으로 면담 요청을 하였다. 저자가 쓴 논문을 구입해 인용 행태에 관한 질문과 그 외의 목적을 위한 보조 자료로서 사용하였다. 면담에 응한 16명과 외국 학술지의 편집장을 오래 역임했던 외부 인사 1명을 포함해 17명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4. 4 면담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trauss & Corbin (1990)의 정성적 분석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에 따라 분석되었다. 이 방법의 모든 절차를 다 따르지는 않았고 항목을 발견하는 부분만 참조하였다. 이 방법은 관찰된 데이터를 특정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데이터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항목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도 데이터 분석의 방향은 존재하는 것인데 데이터 분석의 방향은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해 그 의미를 항목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있는 것”, “처음 발견하고 새로운 것”, “반복 실험했는데”, “재탕을 하는 거죠, 흉내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베껴 내는” 등과 같은 내용은 논문의 독창성으로 분류되었다. 위의 내용들은 다른 말로 표현되었지만 논문의 독창성이 있거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논문의 독창성을 학술지의 질에 연관된 요소로서 면담 대상자가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학술지의 질에 연관된 요소로서 면담 대상자들이 언급한 항목을 발견하였다.

4. 5 설문 조사

발견된 항목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 평가 항목으로서의 상대적인 가치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견된 항목들에 대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우선 발견된 항목들을 기초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유사한 것들 몇개를 통합하고 실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8개를 설문 문항에 추가하여 총 6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학술지 평가항목으로서의 적절성이나 중요성을 물었다.

설문 대상은 국내 학회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국내 여러 분야와 다양한 직책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설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행 “학회총람”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학회와 학문 분야의 대표학회로 판단되는 2개의 학회를 추가해 84개의 학회를 대상으로 정회원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제출된 43개의 학회 명단으로부터 25명씩 무작위 추출해 총 1,075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송부된 1,075개의 설문지 중 59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었다. 전달된 1,016개의 설문지 중 367개가 회수되어 36.1%의 회수율을 보였다.

5. 연구 결과

면담 데이터 분석 결과 발견된 항목과 평가 항목으로서 중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술지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5. 1 면담 데이터 분석 결과

면담 데이터 분석 결과 61개의 항목이 발견되었다(표 1). 이들 항목은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혹은 학술지의 질과 관계가 있는 요소로서 언급된 것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학술지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학술지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들은 학술지의 질에 대한 측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

이들 항목은 발견될 수 있는 항목의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총 17명의 면담 대

〈표 1〉 면담 내용 분석 결과

큰 항목	항목	큰 항목	항목	큰 항목	항목	
지명도	학술지 선호도	심사과정	유무	외관	도표의 선명도	
	SCI 등재		심사기준		구성 체계	
학회	회원 수		게재율		언어	
	단체 성격		심사의 익명성		오자	
	창립 연도		논문배정 공정성		출판사	
	발행 업적		수정 제의 질	규모	발행 부수	
	회원 분포		평가의 균일성		발행 횟수	
	회원 자질		심사위원 수		쪽수	
	중심 회원 자질		외부 심사 위원		발행의 정시성	
	회원 변화		심사 기간		투고 논문 수	
과기총 가입	게재료	게재 논문 수				
이용	이용 횟수	심사료	유료 배포 수			
	Impact factor	심사위원	창간 연도			
	인용 횟수		지명도	투고자 분포		
학술지 내용	개설(review)의 수		심사위원장 자질	배포 광역성		
	주제의 일반성		선정 공정성	후원 기관		
투고자	주제의 전문성		직위	논문의 질	내용 범위	
	투고자 연구 실적		연령 분포		연구 방법	
	투고자 지위		임기		데이터 신빙성	
	투고자 나이		연구 업적		전문가 판단	
				분야별 다양성		

상 중 6명의 면담내용의 분석 결과 40 항목이 발견되었고 (약 66%), 9명의 면담내용 분석을 통해 52개의 항목이 (약 85%) 발견되었다. 그 이후의 8명과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 15% 정도를 더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면담 대상의 수를 증가시켰을 때 추가로 발견될 항목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발견될 항목은 중요성이 크지 않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발견된 항목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1. 1 지명도

학술지에 대한 지명도가 학술지의 질과 연

관된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이는 투고자가 투고하기를 원하는 학술지, 특정 단체가 인정해주는 학술지, 미국의 정보서비스기관인 S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은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지의 질을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학술지의 지명도에 연관된 2개 항목이 언급되었다.

5. 1. 2 학회

학회에 연관된 9개의 항목인 학회 회원 수, 학회의 성격, 창립 연도, 학회의 학술지나 단행본 발행 업적, 학회 회원의 지역적 분포, 학회 회원의 연구 업적 등을 포함하는 회원의 자질, 학회 중심 회원의 자질, 학회 회원수의

변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가입 여부가 학술지의 질과 연관된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학회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으로서 학술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1. 3 논문의 질

게재 논문의 독창성, 논문 내용의 범위, 연구 방법,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논문의 질에 관한 전문가 판단이 논문의 질에 연관된 항목으로 언급되었다. 학술지 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논문의 질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독창성, 논문 내용의 범위,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은 투고 논문의 질에 연관된 항목으로서 전문가에 의한 질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

5. 1. 4 투고자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들로 게재 논문과 학술지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투고자의 연구 실적, 투고자의 지위, 그리고 투고자의 나이가 투고자에 연관된 세가지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투고자의 연구 실적과 지위는 투고자의 과거 경력에 관한 것으로 언급된 것이고, 투고자의 나이는 투고자가 젊을수록 최신의 학문적 지식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국내 학계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1. 5 학술지 내용

학술지 내용에 관한 것이 학술지의 질에 연관되어 언급되었다. 개설(概說, review)이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가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경우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의

견이 있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권위있는 학술지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과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총 3항목이 언급되었다.

5. 1. 6 심사 과정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과 심사기준의 유무, 게재율, 심사자와 투고자의 익명성 보장, 심사대상 논문의 공정한 분배,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제의하는 수정제의의 질, 심사결과의 균일성, 심사위원 수, 외부 심사위원 유무, 심사기간, 게재료, 심사료라는 심사와 심사과정에 연관된 12개의 요소가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는 질 낮은 논문은 걸러내고 질 높은 논문만을 선택하여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심사는 학술지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요소다. 심사에 관한 12개의 항목이 언급되었다. 특히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학계의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언급되었다.

5. 1. 7 심사위원

심사과정과 함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하는 당사자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심사위원에 대한 지명도, 심사위원장의 자질, 심사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심사위원의 학술적 지위, 심사위원의 연령 분포, 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연구업적, 심사위원의 분야별 다양성이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총 8항목이 언급되었다. 심사과정에 연관된 12개의 항목을 포함해 심사에 관한 것이 총 20항목 언급되어 심사에 연관된 항목이 총 항목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면담대상자들이 심사에 연관된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1. 8 외관

학술지의 외관에 관한 사항인 도표의 선명성, 인용 방법 등과 같은 학술 논문의 물리적 구성체계, 발행 언어, 오타, 출판사에 관한 것들이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학술지의 질이라는 것은 주로 게재 논문의 내용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외관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좋은 학술지가 이러한 면에서 모두 우수하다면 이는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기 보다는 학술지의 질을 보여주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표가 선명하고 물리적 구성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이 쉽다면 이러한 요소들도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1. 9 규모

학술지의 규모도 학술지의 질에 연관된 요소로서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학술지 발행 부수 및 횟수, 쪽수, 학술지 정시 발행 여부, 투고되는 논문 수, 게재되는 논문 수, 유료로 배포되는 부수, 학술지 창간 연도, 투고자의 지역적 분포, 학술지 배포의 지역적 분포, 학술지에 대한 후원기관과 같은 학술지 규모에 연관된 요소는 학술지 질에 연관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5. 1. 10 이용

학술지의 이용 정도와 ISI가 제공하는 인용 분석 결과가 학술지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언급되었다. 이들은 모두 게재 논문에 대한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많이 이용되는 학술지가 좋은 학술지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5. 2 설문 조사 결과

발견된 항목들 중 유사한 것들 몇 개를 통합하고 실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8개를 설문 문항에 추가하여 총 6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각 항목은 5단계의 평가에서 최저 2.25에서 최고 4.43까지의 점수를 받았다(표 2).

설문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각각의 분류에 포함된 항목들이 평가항목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되는지 측정하기 위해 1-10위는 1, 11-20위는 2, 21-30위는 3, 31-40위는 4, 41-50위는 5, 51위 이하는 6점을 부여해 각각의 분류에 소속된 항목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들 값이 3.5일 경우 중간 정도의 중요성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분류 내에서도 어떤 항목은 매우 높은 순위에 있고 어떤 항목은 매우 낮은 순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중요성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학술지의 지명도에 속한 항목들은 평균 2.3의 값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지명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정보서비스 기관의 학술지에

<표 2> 설문결과

설문 항목	평균	설문 항목	평균
심사 과정 유무	4.43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가입	3.34
심사기준 유무	4.17	투고자의 학술적 지위	3.34
수정제외의 질	4.16	학술지 발행일 엄수	3.32
데이터의 신빙성	4.14	심사위원의 수	3.31
심사 논문 배분의 공정성	4.12	투고자 분포의 광역성	3.30
인용 횟수	4.04	투고자의 연구 실적	3.26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4.03	논문 내용의 선명도	3.26
평균 인용 횟수	4.01	논문 초록의 질	3.23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	3.87	후원 기관의 규모	3.16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	3.82	연간 색인의 발행 여부	3.12
논문의 오자 정도	3.81	심사위원의 연령 분포	3.11
외국 색인에 등재 여부	3.81	학회 회원 수	3.11
도서관에서의 이용 정도	3.80	논문의 전체적인 모양새	3.01
심사위원의 자질	3.79	학술지 발행 횟수	3.01
논문의 독창성	3.78	외부 심사위원 유무	2.98
투고 선호도	3.78	심사위원 전공의 다양성	2.92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	3.73	학술지 창간 연도	2.91
심사위원의 연구 업적	3.71	계재 논문 편수	2.89
투고 규정의 유무	3.69	학회 창립 연도	2.85
정기적인 편집위원회 개최	3.67	심사위원의 학술적 지위	2.83
구독자의 학술적 지위	3.67	계재된 개설(Review)의 수	2.77
학회 임원의 연구 실적	3.64	출판사의 지명도	2.58
추천 선호도	3.63	심사 기간	2.55
연구방법의 타당성	3.60	심사위원의 임기	2.53
학회 회원의 증감	3.59	쪽 수	2.52
심사결과의 균일성	3.59	외국어 서지 정보 여부	2.46
학회 회원 연구 실적	3.57	발행 단체의 성격	2.44
유료 구독자의 수	3.48	영어 발행 여부	2.43
투고 논문의 수	3.46	심사료	2.42
학회의 발행 업적	3.41	컴퓨터 파일로 투고 여부	2.40
ISSN 부여 여부	3.41	주제의 협소성	2.33
학술지의 전문성	3.40	주제의 다양성	2.33
기관 독자 분포의 광역성	3.37	계재료	2.25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분야와 정보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것은 해당 분야에 속한 이용자들의 지명도는 인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McAllister, Anderson &

〈표 3〉 설문항목 종류별 중요성

분류(평균) \ 순위	1-10	11-20	21-30	31-40	41-50	51+
지명도(2.3)		2	1			
학회(3.9)		1	4	1	1	2
논문의 질(2.0)	1	1	1			
투고자(4.0)				2		
논문 내용(5.5)				1		3
심사과정(2.8)	5	2	1	1		3
심사위원(4.0)	1	2			3	2
외관(4.9)		1		2	3	4
규모(4.2)	1		2	3	3	2
이용(1.8)	2	1	1			

Nardin의(1979)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평가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회에 연관된 항목들은 평균 3.9의 값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학회는 학술지를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투고자들이 주로 회원일 가능성이 커 학술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벗어났다.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만이 17번째로서 회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학회보다는 회원의 분포가 전국적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질 높은 학술지일 것이라는 답이 많았다.

논문의 질에 관한 항목들은 평균 2의 값으로 매우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학술지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논문의 질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그대로 뒷바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질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양심적이고 공정한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므

로 게재 논문의 질에 관한 주관적 판단도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투고자에 관한 두 항목은 모두 31-40위 안에 포함되어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다. 투고자는 게재 논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투고자의 학술적 지위와 투고자의 연구 실적이 학술지의 질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답이 많다는 것은 국내 학술문화에 대한 불신으로서 지위나 연구 실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개인의 학문적 업적과 실제의 학문의 깊이는 관계가 낮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의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의 학술문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술지의 전문성, 게재논문 주제의 협소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논문내용은 5.5의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학술지가 매우 한정적인 주제를 다루건 다양한 주제를 다루건 이

러한 것은 학술지의 질과 관계가 적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매우 특정한 주제만 다루지만 매우 질 높은 학술지라고 인정을 받는 학술지도 있고 Nature나 Science와 같이 폭 넓은 주제를 다루는 학술지라도 과학 발전 방향을 이끌어 간다고 평가 받는 학술지도 있다. 학술지의 전문성의 경우 학술지의 질과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32위의 중간의 순위를 보여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는 답을 하였다.

심사과정은 평균 2.8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1, 2, 3, 5, 7, 9위가 심사과정에 관한 항목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수정제외, 심사논문 배분 과정, 심사위원 선정 과정, 그리고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심사기간, 심사료, 그리고 게재료는 매우 낮은 순위를 보여 이들은 학술지의 질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심사위원에 관한 항목들은 4.0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로서 투고자와 더불어 학술지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설문결과를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선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7위를 보였는데 이는 심사과정과 더불어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심사위원의 자질(14위)과 심사위

원의 연구업적(18위)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심사위원의 학술적 지위”가 53위의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고자의 학술적 지위”가 35위의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연구자들은 학술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학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술지의 외관은 평균 4.9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학술지의 외관과 학술지의 질은 연관이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술지 외관에 관한 항목 중 “논문의 오자 정도”만 11위의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질 높은 학술지는 편집이 잘 되어 오자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술지의 질을 보여 주는, 즉 학술지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오자를 줄이는 것이 학술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술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항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학술지의 규모는 평균 4.2의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학술지의 발행 부수, 발행 횟수, 쪽수, 게재 논문 수 등이 많은 학술지는 그렇지 않은 학술지보다 질이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은 10위로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은 국내 상황에서는 회원의 분포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 또한 17위로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하나의 지역에 국한된 학술지보다, 좀 더 비판적

인 시각에서 본다면, 자연에 의한 학회보다는 지역성을 배제한 학술지가 더 질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술지의 이용에 관한 항목은 1.8로서 가장 높은 평균 순위를 보였다. 이는 논문의 질에 관한 항목이 평균 2로서 높은 순위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질이 높은 학술지는 논문의 질이 좋고 많이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용 횟수”(6위)와 “평균 인용 횟수”(8위)는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방법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ISI의 인용 분석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다. “도서관에서의 이용 정도”(13위)와 “구독자의 학술적 지위”(21위)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이들은 개개의 학술지를 평가할 때마다 전국적인 설문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어려운 항목이다.

이와 같이 66개의 항목에 대해 중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들과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평가항목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자료로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설문 대상이 모든 항목에 대해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 적지않은 비율의 항목에 대해 직관적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타당한 순위의 범위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증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것들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6. 학술지 평가항목의 선택

설문조사 결과, 항목 측정의 용이성, 학술지 질과의 관계의 직접성, 국내 환경에의 적합성 등에 근거해 평가항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6. 1 “지명도”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학술지가 외국의 색인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등재되어 있는가에 관한 평가항목인 “외국 색인에 등재 여부”는 3.81로 12위라는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국내 학술지가 외국의 색인이나 학술 DB에 등재되었을 경우 질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ISI의 인용 색인이나 Medline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른 외국 색인도 일정한 평가를 거쳐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외국의 색인이나 학술 DB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명도와 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투고 선호도”와 “추천 선호도”는 3.78과 3.63으로 16과 23위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이들은 이용자 혹은 기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다. 많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매번 이러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들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6. 2 “학회”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학회나 기타 발행 기관의 성격이 전국적인가 혹은 지역적인가에 관한 항목인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은 3.73으로 17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해 선택할 가치가 있다. 학문 분야가 특정 지역의 문제만을 다루는 경우가 있겠지만 학회의 회원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학문적인 특성보다는 학문과 관계가 적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이 평가항목이 선택된다면 불이익을 받는 학문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항목은 전체 항목 중의 적은 일부이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학회 임원의 연구 실적”은 3.64로 22위를 차지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연구실적이 좋은 임원이 이끌어가는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41로 30위를 보인 “학회의 발행 업적”은 그다지 높은 순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술지 등 발행 업적이 많은 학회가 활동이 활발하고 학회의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학회 회원 수”는 3.11로 45위의 낮은 순위를 보여 평가항목으로서 가치가 낮게 인식되고 있다. 신생 학문분야나 그 특성 상 종사하는 인원의 수가 적은 학문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회 회원의 증감” 항목도 3.59로 25위의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증가된 학회 회원의 수 혹은 비율은 현존하는 학회의 회원 수나 학문 분야의 크기와 비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것은 평가항목으로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3.57로 27위를 보인 “학회 회원의 총 연구 실적”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3.34로 34위를 보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가입 여부”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권위 여부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가입할 수 없는 학문 분야들이 많고, “학회 창립 연도”는 낮은 순위와 중요한 신생분야의 가능성, “발행 단체의 성격”도 60위의 낮은 순위로 이들 모두 평가항목으로서 가치가 낮을 것이다.

6. 3 “논문의 질”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데이터의 신빙성”, “논문의 독창성”, 그리고 “논문의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들 세 항목은 논문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 4.14로 4위, 3.78로 15위, 3.60으로 24위를 받아 모두 평가항목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6. 4 “투고자”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투고자의 학술적 지위”는 3.34로 35위를, “투고자의 연구 실적”은 3.26으로 39위를 보여 학술지 평가항목으로서 약간의 가치는 보여주었다. 그리고 투고자의 질이 학술지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투고자의 학술적 지위와 투고자의 연구실적을 실제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술지 평가항목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6. 5 “논문 내용”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학술지의 전문성”은 3.40으로 32위를 보여 평가항목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보여주었고, 각종 학술단체와 유사기관에서 발행되는 잡지들 중 전문적인 학술지만 골라서 학술지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학술단체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 소식지나 간단한 의견 정도를 게재하는, 전문적인 학술지라고 볼 수 없는 잡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학술논문만을 게재하는 전문적인 학술지와 구분되어야 한다.

“게재된 개설(概說, review)의 수”, “주제의 협소성”, 그리고 “주제의 다양성”은 54위, 64위, 그리고 65위를 보여 평가항목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다.

6. 6 “심사과정”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심사과정 유무”는 4.43으로 1위를 보여 학술지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심사논문 배분의 공정성”도 4.12로서 5위의 매우 높은 순위를 보였고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도 3.87로서 9위의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들 항목은 심사과정이나 절차에 포함되거나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심사기준 유무”는 4.17로 2위를 보여 이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은 기준과 선정된 기준의 집행이라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매우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도 있고 기준과 과정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개별 항목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심사기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집행이 엄정하지 않다면 심사기준의 효과가 퇴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심사과정과 따로 분리해 평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수정제와는 심사위원이 투고 논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 내용 등을 투고자에게 제의하는 것으로 학술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게재 논문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이 권고하는 수정제외의 질이 높다면 수정 후 게재되는 논문의 질은 당연히 높을 것이다. “수정제외의 질”은 4.16으로 3위를 보여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정 제의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논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라면 우수 논문이라 해도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정 제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수정 제의가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심사결과를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문의 작성방법, 인용방법, 논문의 규격 등 논문 투고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에 관한 항목인 “투고규정의 유무”는 3.69로서 19위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투고규정은 논문의 내용보다는 외형과 형식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지 평가항목으로서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Weller(1987)의

연구 결과는 투고규정의 상세함과 학술지의 질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투고 규정이 구체적이고 엄정해야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기적인 편집위원회 개최 여부”는 3.67로 20위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공식화된 논문 심사절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하나의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균일성에 관한 항목인 “심사결과의 균일성”은 3.59로서 26위의 순위를 보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항목이 언급된 이유는 논문 이외의 요소로 인해 심사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논문 심사결과가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재”와 “계재 불가”라는 양극단의 심사결과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심사위원의 자질이나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물론 매우 높은 일관성도 담합에 의한 심사라고 볼 수 있으나 심사위원의 자질이 높다면 어느 정도의 균일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Hargens와 Herting(199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의 균일성은 일반적으로 0.2-0.3정도라고 하므로 이보다 많이 낮은 경우는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평가항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수가 늘 어날수록 비교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늘

어나므로 평가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시험평가에서 변별력도 낮게 나타나 실제적인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의 수”는 3.31로서 37위의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다. 설문에서 이 항목은 평가항목으로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심사위원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기 위해 평가항목으로 채택했다.

“심사기간”, “심사료”, 그리고 “계재료”는 2.55, 2.42, 2.25로서 56, 62, 66위의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술지의 질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면담을 통해 발견된 항목 중 “계재율”이 연구자의 불찰로 설문지에서 빠졌다. 계재율은 투고된 논문 중 게재된 논문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학술지에 게재되기 위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재율이 낮을수록 해당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경쟁이 높아 심사과정이 엄정할 경우 해당 학술지에 질 높은 논문이 게재될 확률이 높다.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투고 선호도”와 “추천 선호도”, 그리고 “투고 논문의 수”는 계재율에 연관된 항목으로서 3.78, 3.63, 3.46으로서 16, 23, 29위로서 모두 중간 이상의 순위를 보여 계재율은 평가항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6. 7 “심사위원”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4.03으로 7위의 순위를 보였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학술지

를 심사하고 투고 논문의 수정에 관한 제의를 하는 등 게재 논문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므로 이 항목은 평가항목으로 포함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심사위원의 자질”은 3.79로서 14위, “심사위원의 연구 업적”은 3.71로서 18위를 보였다.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므로 이들 항목은 평가항목으로서 가치가 있다.

“심사위원의 학술적 지위”는 2.83으로 53위를 보여 겉으로 드러나는 학술적 지위에 대한 신임이 적음을 보여주었다. 심사위원의 연령 분포”는 3.11로서 44위, “외부 심사위원 유무”는 2.98로서 48위, “심사위원 전공의 다양성”은 2.92로서 49위, “심사위원의 임기”는 2.53으로 57위의 낮은 순위를 보여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다.

6. 8 외관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논문의 오자 정도”는 3.81로 11위의 높은 순위를 보여 논문의 오자가 논문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이는 오자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면밀하게 검사된 논문은 질이 좋을 것이라는 인식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험평가 결과 이 항목은 평가 대상 학술지를 읽어보고 오자의 발생빈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오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 평가항목으로서 변별력도 낮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항목은 포함되기 힘들다.

“ISSN 부여 여부”는 3.41로서 31위의 중간

순위를 보였다. ISSN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기간행물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학술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가 ISSN을 부여받는 경우 변별력이 약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으로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논문 내용의 선명도”와 “논문의 전체적인 모양새”도 3.26으로 40위와 3.01로 46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고 “연간 색인의 발행 여부”는 3.12로서 43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다. 그리고 “출판사의 지명도”는 2.58로 55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들 모두 평가항목으로 낮은 가치를 보였다.

“영어 발행 여부”는 2.43으로 61, “외국어 서지정보 여부”는 2.46으로 59, 그리고 “컴퓨터 파일로 투고 여부”도 2.40으로 63위의 매우 낮은 순위를 보여 평가항목으로서 가치가 낮게 인식되고 있다.

6. 9 규모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은 3.82로서 10위의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 항목은 평가항목으로 채택된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술지는 소속된 학회회원에 배포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회 회원 외에 기관 구독자나 유료 구독자도 무시하지 못할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고자 분포의 광역성”은 3.30으로 38위의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였으나 투고자도 학술지의 전국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 그리고 “투고자 분포의 광역성” 세 항목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나 학술지의 전국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기관독자 분포의 광역성”은 순위가 높지 않고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과 그 의미가 지나치게 중복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유료 구독자의 수”는 현재 국내 학술지를 유료로 구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변별력이 매우 낮을 것이다.

“투고 논문의 수”는 3.46으로 29위의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였다. 이는 투고된 논문과 게재된 논문의 비율인 게재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이다. 면담에서는 “게재율”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설문조사에 부주의로 포함되지 못했으나 이는 학술지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 항목은 “게재율”로 이름을 바꾸어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 발행일 엄수”는 3.32로 36위의 중간 순위를 보였다. 이 항목은 평가항목으로 큰 가치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술지의 발행일을 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학술 논문이 투고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술지 발행에 연관된 모든 절차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ISI의 경우, 학술지가 정해진 시기에 발행되는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시킬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학술지 발행을 위한 “후원 기관의 규모”는 3.16으로 42위의 낮은 순위를 보였고, “학술지 발행 횟수”는 3.01로서 47위의 낮은 순위를

보여 포함시키기 힘들다. 그리고 “학술지 창간 연도”도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6. 10 이용에 소속된 항목의 선택

“인용 횟수”와 “평균 인용 횟수” (Impact Factor)는 4.04과 4.01로서 6과 8위의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국내의 현실에서는 인용분석이 어렵다. 물론 차후 학문에 독자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 인용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이용 정도”는 3.80으로 13위, “구독자의 학술적 지위”는 3.67로서 21위의 높은 순위를 보여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이는 측정이 어려워 학술지 평가에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

7. 항목의 구체화와 분류

학술지 평가항목으로서 실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이 선택되었다. 이들 항목이 실제로 평가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항목이 정의가 효율의 측정, 장점과 단점의 가시화, 그리고 장점의 확대와 단점의 보완이라는 평가의 목적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화된 항목을 의미와 측정방법별로 분류하여 평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7. 1 선택된 항목의 구체화

“외국색인에 등재 여부”는 외국 색인에의 등재 여부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색인은 제외되고 있다. 이 항목의 의미를 확장해 국내 색인을 포함하기 위해 외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일종의 색인인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등재 여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재하고 있는 색인의 질도 포함시킨다면 평가항목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 이 항목은 “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명성”으로 바꾸었다.

〈표 4〉 선정된 항목

설문 항목	평균
심사 과정 유무	4.43
심사기준 유무	4.17
수정제외의 질	4.16
데이터의 신빙성	4.14
심사 논문 배분의 공정성	4.12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4.03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	3.87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	3.82
외국 색인에 등재 여부	3.81
심사위원의 자질	3.79
논문의 독창성	3.78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	3.73
심사위원의 연구 업적	3.71
투고 규정의 유무	3.69
정기적인 편집위원회 개최	3.67
학회 임원의 연구 실적	3.64
연구방법의 타당성	3.60
투고 논문의 수	3.46
학회의 발행 업적	3.41
ISSN 부여 여부	3.41
학술지의 전문성	3.40
학술지 발행일 엄수	3.32
심사위원의 수	3.31
투고자 분포의 광역성	3.30

학회 회원의 분포가 넓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 전국성에 매우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학회나 기타 발행기관의 성격이 전국적인가 혹은 지역적인가에 관한 항목인 “학회 회원 분포의 광역성”은 “발행기관의 전국성”으로 바꾸었다. “학술지 배포의 광역성”도 학술지가 얼마나 전국에 고루 배포되는가에 관한 평가다. 그러므로 더 일반적인 “학술지 배포의 전국성”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투고자 분포의 광역성”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학술지 투고의 전국성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게재 논문 저자의 전국성을 측정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에 더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문 저자의 전국성”으로 바꾸었다. “학회의 발행업적”은 학회 이외의 기관도 포함하기 위해 “발행기관의 발행업적”으로 바꾸었다.

“데이터의 신빙성”, “논문의 독창성”, 그리고 “논문의 연구 방법의 타당성”, 이들 세 항목은 논문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들은 의미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로 측정하는 것보다 하나의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게재 논문의 질과 독창성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인 “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이 선택되었다. “학술지의 전문성”은 전문적인 학술지와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 소식지나 간단한 의견 정도를 게재하므로 전문적인 학술지라고 볼 수 없는 것들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학술지의 전문성”이라는 항목 이름을 그대로 살렸다. 이들 항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주관

적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채택되었다.

“심사과정 유무”, “심사논문 배분의 공정성”,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은 투고 논문의 심사에 사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항목은 통합하여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학술지의 심사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심사기준과 절차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에 맞고 또한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항목은 “심사기준의 구체성과 엄정성”과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의 두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것 외에 심사기준과 심사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할 필요도 있다. 평가항목으로 선택된 “정기적인 편집위원회 개최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심사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는가에 대해 측정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적용 여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공식적으로 적용하는가에 관한 평가를 위해 “정기적인 편집위원회 개최 여부” 대신 “심사절차 이행”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항목으로 바꾸었다. “심사절차 이행”이라는 이름은 편집위원회의 개최와 심사결과의 투고자에 대한 송부는 심사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택되었다.

“수정제외의 질”은 질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인 “수정제외의 상세성과 구체성”으로 바

꾸었다. 수정제외는 선생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수정에 관한 제외가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평가하기 어렵다. 수정제외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수정제외가 얼마나 상세하고 구체적인가를 평가해 수정제외를 평가한다면 평가가 더 쉽고 타당성도 높을 것이다.

“투고규정의 유무”도 단순히 투고규정의 유무 자체를 평가하는 것보다 투고규정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에 맞고 효과적이다. 이 항목은 “투고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심사위원의 수”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의 수”로 바꾸었다. “투고논문의 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논문 게재율”로 바꾸었다.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실제적으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선정에 사용하는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평가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심사절차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매년 임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문을 고정적으로 심사하는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을 선택해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하는 고정적인 편집위원회에 한정하기 위해 심사위원이라는 표현 대신 편집위원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항목은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으로 바뀌었다.

“심사위원의 연구 업적”은 “심사위원의 자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의 자질은 연구 실적과 대외적 학술활동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심사위

원의 학술적 지위” 항목이 낮은 순위를 보여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지위에 국한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외적 학술활동은 당시의 학술적 지위보다는 과거부터 수행했던 학술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들 항목은 “편집위원의 연구실적”과 “편집위원의 대외활동”으로 바꾸었다.

“ISSN 부여 여부”는 해당 번호가 부여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지만 번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항목의 이름을 “ISSN 부여”로 하였다. “학술지 발행일 엄수”는 학술지가 발행 예정일을 엄수하여 발행되는가에 관한 평가다. 이 항목은 “정시 발행”으로 좀 더 간략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7. 2 평가항목의 내용별 분류

선택된 19개의 항목은 <표 5>에서와 같이

내용별로 분류될 수 있다.

“투고 논문 심사”에 속한 항목들은 투고 논문의 심사에 연관되는 기준, 절차, 심사결과, 편집위원, 수정제의에 연관된 것으로 가장 많은 10개의 항목이 이 분류에 속한다.

“학술지 신뢰도”에 속한 항목은 학술지 발행기관의 회원, 논문저자, 학술지 배포의 전국성, 발행기관의 발행업적, 학술지의 정시 발행, 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학술지의 신뢰도에 관한 항목으로서 7항목이 이에 속한다.

“게재논문의 수준”에 속한 항목은 게재 논문의 질, 독창성, 전문성에 관한 것으로 2개의 항목이 이에 속한다.

7. 3 평가항목의 측정 방법별 분류

항목은 다시 측정방법별로 분류할 수 있다. 항목의 특성을 관찰해 본 결과 일반 평가, 학

<표 5> 항목의 의미별 측정방법별 분류

	일반 평가	전문가 평가	
		학술전문가 평가	주제전문가 평가
투고논문 심사(10항목)	심사절차 이행 심사위원 수 편집위원의 연구실적 게재율	심사기준의 구체성과 엄정성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편집위원의 대외활동 수정제의를 상세성과 구체성 투고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	
학술지신뢰도 (7항목)	발행 기관의 전국성 논문 저자의 전국성 발행기관의 발행업적 정시 발행 학술지 배포 전국성 ISSN 부여	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명성	
게재논문 수준 (2항목)			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 학술지의 전문성

〈표 6〉 평가항목 점수 배정 기준표

	일반 평가	학술전문가 평가	주제전문가 평가	계
투고 논문 심사	4개 항목	6개 항목		50점
학술지 신뢰도	6개 항목	1개 항목		30점
계재논문의 수준			2개 항목	20점
	40점	40점	20점	100점

술전문가 평가, 주제전문가 평가, 3개의 측정 방법이 도출되었다.

심사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단순한 측정, 심사위원수, 연구실적에 관한 계량화되 측정, 게재율, 회원, 저자, 학술지 분포 현황, 정시발행 등은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항목의 의미와 정확한 지침이 있다면 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이다.

심사기준, 심사절차,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투고규정, 편집위원의 학술적인 대외활동 등은 특정한 주제분야의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색인이나 데이터 베이스도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보다는 넓은 범위의 주제를 포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제에 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정제외는 얼마나 상세하게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수정제외가 학문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 비추어 정확한가를 신빙성있게 측정한다는 것은 학문분야의 층이 두텁지 못한 국내의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는 수정제외의 질을 상세성과 구체성이라는 좀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측정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수정제외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항목은 학술활동에 경험이 많거나 학술지 발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

는 사람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계재논문의 질 및 독창성과 학술지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주제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다.

7. 4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평가항목은 평가방법에 근거해 일반 평가, 학술전문가 평가, 주제전문가 평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평가항목의 내용에 근거해 투고 논문 심사, 학술지 신뢰도, 계재논문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표 6〉과 같은 방법으로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방법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몇 점의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학술전문가와 주제전문가의 신뢰도에 따라 일반 평가에 배당될 점수가 다를 것이고, 주제전문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주제전문가 평가와 계재논문의 수준에 배당되어야 할 점수가 다를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며 얻은 적은 양의 경험에 근거해 제안을 한다면, 일반 평가에 40점, 학술전문가 평가에 40점, 그리고 주제전문가 평가에 20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우선 일반평가 부분이 평가항목은 많지만 학술전문가 평가에 포함된 항목이 비

중이 좀 더 높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주제전문가 평가는 자신이 속한 분야의 학술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학회의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피할 수 없어 비중을 낮게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용별로 점수를 배분한다면 투고논문 심사에 50점, 학술지 신뢰도 부분에 30점, 게재논문의 수준 부분에 20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대부분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수 배정에 근거해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준 해당 항목의 순위와 국내 학계 현실을 고려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개별항목에 대한 점수 배정을 할 수 있다.

8.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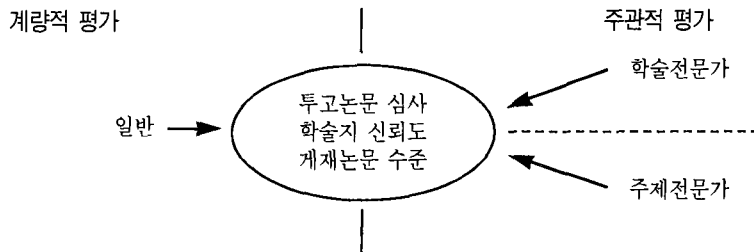
학술지 평가에 국내 학계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면담하고,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학술지 질과 관계가 있는 항목을 발견하고, 발견된 항목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항목의 측정 방법과 점수를 정하여 국내 학술지 평가를 위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8.1 학술지 평가모형

학술지 평가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학술지는 세 가지 종류의 인원에 의해 평가된다. 학술지와 학술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 의해 일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술지 발행과 학술활동에 많은 경험과 지식인 있는 학술전문가에 의해 학술지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와 대외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학술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술지의 질을 결정하는 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과 학술지의 전문성에 대한 주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학술지를 다양한 인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는 학술지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투고논문 심사, 학술지의 신뢰도, 그리고 게재논문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학술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림 1>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

게다가 이 평가모형은 학술지의 질을 계량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평가모형에 의한 학술지 평가는 다양한 인원에 의해, 학술지의 다양한 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학술지 평가에 내재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8. 2 평가 모형의 의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술지 평가모형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학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학계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잘 맞는 것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외국 기관의 사례나 경험을 그대로 답습 내지는 도입할 경우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물론 학술지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해 도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학술지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된 외국기관의 평가방법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목적에만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학술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이루어진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가장 맞는 평가모형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국내 학문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학술지 평가모형에 근거한 평가결과는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가항목이 학술지의 질 평가와 더불어 학술지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각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9. 연구결과의 한계

본 연구의 결과는 면담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 항목을 발견한 후 각 항목의 중요성을 설문으로 평가한 것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선택한 항목이 실제로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에 관한 직접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타당성을 좀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발견된 평가항목은 설문 대상자들의 인식의 결과일 뿐, 실험적으로 학술지 질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측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담 대상이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 연구 활동의 능동적 참여자이고 학술지의 이용자이며, 몇몇은 학술지의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술지에 대한 직접적이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내 학술지의 현황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특히 국내 학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며 어떤 점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적하는 요소들은 국내 학술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가능성이 높고, 학술지 평가항목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타

당성은 추후 이들 평가항목을 사용한 평가의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남영준. 1995. "인용문헌을 이용한 정기간행물 효용성 평가."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9-132.
- 신동민. 1996.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수집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1): 83-101.
- 이해영. 1994. "한국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인용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1): 57-79.
- 장혜란. 1990. 도서관 서비스 평가론. 구미무역출판부.
- 정보통신부. 1998. 知識基盤 經濟·社會에 對 備한 情報化 戰略(案). <http://mic.etri.re.kr/BroadDir/정책/정보화전략회의.html>
- Cronin, D. 1984. *The Citation Proces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Citations in Scientific Communication*. London, Taylor Graham.
- Garfield, E. 1990. "Current comments: How ISI selects journals for coverag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siderations." *Current Contents* 22: 5-13.
- Hargens, L. & Herting J. 1990. "Neglected considerations in the analysis of agreement among journal referees." *Scientometrics* 19(1-2): 91-106.
- ISI 대표단 초청 특별강연회. 1997. 1997년 9월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ISI 대표단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배포된 자료.
- Lindsey, D. 1989. "Using Citation Count as a Measure of Quality: Measuring What's Measurable Rather Than What's Valid." *Scientometrics* 15(3-4): 189-203.
- McAllister, P. R., Anderson, R. C. & Nardin, F. 1980. "Comparison of Peer and Citation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Scientific Journa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1: 147-152.
- NLM. 1998. "Fact sheet: Journal selection for Index Medicus /Medline." <http://www.nlm.nih.gov/pubs>

- /factsheets/jse1.html.
-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 and Techniques*. Newberry Park, CA, USA: Sage Publication.
- Weller, A. 1987. "Editorial policy and the assessment of quality of among medical journals."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75(4): 310-316.